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이야기 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20명의 구술을 담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20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서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무형문화재 구술 채록 사업'을 진행해 확보한 보유자들의 삶과 전승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구술한 자료 및 채록한 원천자료 49편 중 먼저 총 20명의 이야기를 추려 엮은 것이다.

자서전 속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의 황영보 보유자를 비롯한 서도소리(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이은관, 경기민요(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이은주,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노재영 등 전통공연예술 분야 8명과 약기장(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이영수, 망건장(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이수여 등 전통기술 분야 9명, 그리고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김금화 등 의례·의식 분야 3명 등 보유자들의 승과정과 출생, 결혼 등 평범한 일상 속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

일례로, '백동연죽장' 황영보에 대해선



국립무형유산원, 20명 구술 자서전 20권 발간

'황영보는 1932년 전북 남원시 왕정동에서 태어났다. 왕정동은 당시 담뱃대 이 름난 지역으로 담뱃대 제작을 생업으로 삼은 가구가 많았다. 황영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담뱃대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으신 분이었고, 그는 이러한 영향으로 14살부터 아버지에게 연죽 제작 일을 사

사했다. 그러던 중 6·25가 터졌고, 인민군에 의해 합천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와 남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총알이 지나다니는 길을 옆드리고 숨어 다니는 등 생사를 오고가는 경험을 하였고 술취한다.'(이하 중략)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울 마칠 무렵, 그

는 남원 도로가에 가게를 짓고, 안채를 집으로 삼아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림을 꾸려갔다. 그 가게에서 도방을 하여 전라도 오일장을 비롯한 경상도, 충청도 등의 담뱃대 공급을 도맡았다. 담뱃대의 수요가 흥하던 당시 황영보는 꾸준히 제작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을에서 두 번째로 텔레비전을 살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구술에 참여한 보유자들은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고령자들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8·15광복,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일어났던 격동기를 겪은 산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무형유산원은 아직 책으로 담지 못한 전승자 29명 중 15명의 이야기는 올해 추가로 발간하고, 내년에 나머지 14명의 자료도 마저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은 국내 국공립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3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뮤지컬 '들어주세요', 21일 우진문화공간서

배우다킵퍼나가 뮤지컬 '들어주세요'를 21~22일 양일간 우진문화공간에서 선보인다.

'들어주세요'는 학교폭력, 따돌림, 학업 스트레스, 성폭력 등의 사각지대를 '자살'이라는 소재를 통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작품은 자칫 무겁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춤과 노래를 통해 유쾌하게 담아내며, 코러스를 담당하는 배우 다수가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다. 실제 학교생활과 일상 그리고 친구관계를 청소년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청소년 관객들에게 폭풍 공감과 재미를 선사하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소통의 방법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은 성폭행 피해자 세영과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전교 1등 선우, 학교폭력을 당하는 해진이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연애를 하고 있는 의진이가 이끈다.

이들은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청소년들로,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약이 있다는 말에 자살을 결심하며 밀실에서 만나기로 한다.

서막한 그들 사이로 목소리만 등장한 관리자는 죽음의 약을 나눠주며 죽기 전 한 시간 동안 서로의 고민을 나눠보려 권한다.

차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며 조금씩 마음을 나눠가지며 다독여줄 친구가 생겼음을 인식하게 된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죽음을 후회하며 밀실에서 탈출한다.

송원·박민성 연출가는 "들어주세요는 외면하고 싶은 청소년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으로 주인공들의 고민이 소수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한국소리문화전당, '유랑극장' 희망단체 모집

한국소리문화전당은 '2018 유랑극장'의 희망단체를 모집한다.

'유랑극장'은 도내 각 지역의 균등한 문화향유 혜택을 위한 것으로, 전당은 그간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문화회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출하며 '문화 뒷밭'을 가꾸어 왔다.

모집지원 자격은 전주시를 제외한 시·군 소재의 학교, 외로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복지기관, 공연관람 기회가 적은 비영리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고를 통해 선정된 희망단체에게 단체의 선호 장르, 관람 연령, 장소환경, 취향에 따라 맞춤형 장르의 공연을 제공한다.

단, 정치·종교·상업적인 목적의 단체나 신청단체의 사익과 경조사의 일환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2017년 선정단체는 신청이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며, 한국소리문화전당 홈페이지(www.sori21.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뒤 이메일(sori2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데미안갤러리 개관 기념전 '연의 미학'

사진 전문 전시관인 '데미안갤러리'가 개관 기념 전시를 갖는다.

전주 서신동에 자리한 데미안갤러리는 사진작가이자 데미안 갤러리 대표인 양병조 씨의 '연의 미학'으로 개관전의 정서를 표현했다.

양 대표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누구나 사진을 배우고, 촬영하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전에선 '연꽃'을 주제로 촬영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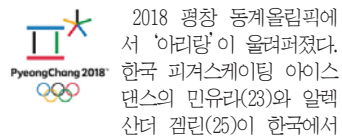
그는 "연꽃의 고결한 기품과 찬란한 아름다움에 매혹됐다"면서 "여름 내내 향기가 넘치는 연꽃 주위를 서성거린다"며 전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해은 기자



피겨와 아리랑의 조화



한국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민유라(23)와 알렉산더 켈린(25)이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 무대에서 감동의 아리랑 연기를 선보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민유라(23)와 알렉산더 켈린(25)이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 무대에서 감동의 아리랑 연기를 선보였다.

민유라·켈린은 2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수놓은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댄스 86.52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61.22점)과 합쳐 총 147.74점을 얻어 최종 18위에 올랐다.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44.61, 예술점수(PSC) 41.91을 얻은 민유라·켈린은 자신들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프리댄스 최고점(92.13)에 5.61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총점도 2017년 ISU 챌린저 시리즈 민스크 아레나 아이스 스타 대회에서 기록한 자신들의 ISU 공인 최고점(152.00)에 4.26 부족했다.

민유라·켈린, 아이스댄스 프리댄스 아리랑 연기 선보여 전날 쇼트프로그램과 합쳐 총 147.74점 얻어 최종 18위 올라

한국 아이스댄스 선수가 처음 참가한 올림픽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24위에 오른 양태화·이천군 이후 16년 만에 민유라와 켈린은 한국 아이스댄스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됐다.

미국에서 자란 이민 2세인 민유라와 미국 출신 귀화 선수인 켈린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싶다는 평창올림픽이 있는 2017~2018 시즌 프리댄스곡으로 아리랑을 골랐다. "외국인 심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등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민유라와 켈린은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이라며 프리댄스곡으로 아리랑을 고집했다. 올림픽 아이스댄스에는 24일이 출전하고, 이 중 쇼트댄스에서 상위 20팀이 프리

댄스에서 연기를 펼칠 수 있다. 민유라와 켈린의 평창올림픽 1차 목표는 쇼트댄스 20위 내에 들어 프리댄스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민유라는 팀 트로피를 치를 당시 "아리랑에 맞춰 연기는 것이 목표다. 쇼트댄스를 통과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쇼트댄스에서 16위에 올라 반드시 아리랑을 선보이겠다는 뜻을 이뤘고, 두 선수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프리댄스에서 4번째로 빙판에 오른 민유라와 켈린은 피겨 경기복으로 개조한 한복 차림이었다. 민유라는 분홍 치마와 살구색 저고리, 켈린은 하늘색 저고리 형태의 상의를 착용했다. 쇼향이 부른 '홀로 아리랑'이 울려 퍼지

면서 민유라와 켈린의 연기가 시작됐다. 스테이셔너리 리프트를 레벨4로 연기하고 수행점수(GOE) 0.77을 얻었다.

서클러 스텝 시퀀스(레벨3)로 연기를 이어간 민유라와 켈린은 콤비네이션 스텝에서 레벨4를 받아냈고, GOE 0.86점까지 챙겼다.

스트레이트 라인 리프트를 레벨4로 처리하면서 GOE 0.36점을 얻은 민유라와 켈린은 나란히 서서 똑같이 돌며 이동하는 싱크로나이즈드 트위즐(레벨2)로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했다.

다이어고널 스텝 시퀀스에서 레벨3을 받아낸 민유라·켈린은 켈린이 민유라를 들고 도는 로테이셔널 리프트에서도 레벨3에 GOE 0.77점을 얻었다.

애절한 선율을 따라 코레오그래픽 스피닝 무브먼트와 코레오그래픽 댄스 리프트를 연기한 민유라·켈린은 나란히 앉아 한 손을 들어올린 자세로 연기를 마쳤다. /뉴시스